

낙뢰 최다 전남 '여름철 주의보'

지난해 8만305회 발생...대기 불안정한 6~8월 집중 곡성 7393회·담양 7368회 순...광주도 3544회나

지난해 전남에서만 총 8만305회의 낙뢰가 쏟아졌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낙뢰 발생수의 26.9%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수치다. 낙뢰는 특히 대기가 불안정한 6~8월 여름시즌에 집중되는 것으로 분석돼 다가오는 여름철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기상청이 발간한 '2017 낙뢰 연보'를 살펴보면 지난해 광주·전남에 총 8만 8849회의 낙뢰가 발생했다. 광주는 이 기간 총 3544회가 발생했으며 전남에는 무려 8만 305회의 낙뢰가 집중됐다.

전남은 곡성이 7393회로 가장 많은 낙뢰가 발생했으며 담양 7368회, 신안 6758회, 화순 5910회, 장성 5706회 등의 순이었다. 광주는 광산구 1865회, 북구 1159회, 동구

209회, 남구 204회, 서구 107회 등이었다. 낙뢰 연보는 기상청이 여수, 완도, 흑산도 등 전국 21곳의 낙뢰관측망으로부터 관측한 자료를 국내의 내륙 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해 월별, 시·도별, 시·군·구별 낙뢰 발생 횟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낙뢰(31만6679회) 중 85%(26만9425회)는 여름철(6~8월)에 관측됐다. 7월에만 18만544회가 관측돼 지난해 발생한 전체 낙뢰의 58.2%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7월 14일에는 이례적으로 하루 동안 전국에 5만2856회의 낙뢰가 쏟아졌다. 이날 전남은 2만 20회, 광주는 1030회의 낙뢰가 내리쳤다.

당시 발생한 낙뢰는 중국에서 발달해 국내로 유입된 큰 구름대 아래에 찬 공기가

머물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 내륙에 있던 따뜻한 구름이 겹치면서 소나기성 구름(적란운)이 남쪽에서 생성, 광주·전남에 많은 낙뢰가 내렸다는 것이 기상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윤기환 기상청 통보관은 "지난해 7월 14일은 북태평양에 고기압이 남해안까지 올라와 따뜻한 하층과 차가운 상층의 온도차로 인해 대기불안정이 발생해 낙뢰가 발생했다"면서 "하지만 낙뢰의 경우 특정한 패턴을 가지고 발생하지 않아 매년 지역별로 편차가 심하다. 올 여름에는 어떤 패턴으로 낙뢰가 발생할 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2017 낙뢰 연보'는 전자파일 형태로 기상레이더센터홈페이지(radar.kma.go.kr)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기상레이더센터 홈페이지의 '우리 동네 낙뢰정보' 서비스를 통해 직접 사용자가 지정된 지역의 낙뢰 발생빈도, 접근 위치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 낙뢰 발생 시 행동 요령

- 집**
 - 외출을 자제한다
 - 안테나 또는 전선에서 1m 이상 떨어진다
 - 전기제품 플러그를 뽑는다
 - 창문을 닫고 감전 우려가 있는 샤워나 설거지를 하지 않는다
- 산**
 - 낙뢰가 보이면 신속히 낮은 곳으로 피한다
 - 키 큰 나무는 낙뢰를 맞기 쉬우니 피한다
 - 등산용 스틱이나 우산 등은 내려놓은 뒤 멀리 떨어뜨려 둔다
 - 깊은 동굴로 피했을 때는 다른 사람과 5m 이상 떨어져 무릎 굽혀 자세를 낮춘다
- 야외**
 - 골프를 중단하고 골프채를 멀리 떨어뜨린 뒤 대피한다
 - 삼아나 괘이 등 농기구를 멀리 떨어뜨린 뒤 대피한다
 - 차를 세우고 낙뢰가 그칠 때까지 그대로 머문다

'여직원 성추행' 문화전당 직원 검찰 송치

광주동부경찰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직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29일 오후 4시께 광주시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근무지에서 여직원 B씨를 뒤에서 껴안고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수습 기간인 데다 용역회사 직원 신분으로 문제를 일으켰다가 직장을 잃을까 봐 두려워 이런 내용을 공개하지 못했다.

더구나 가해자는 무기계약직 전환의 평가 권한이 있는 관리직 직원이었다.

미투 운동을 계기로 '직장 내 성희롱 방지 교육'을 받은 B씨는 지난 4일 뒤늦게 경찰에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거짓말탐지기가 조사 결과 '거짓말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거짓말탐지기 결과 등을 토대로 A씨가 B씨를 성추행한 것으로 보고 지난 28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여제자 상습 성추행 전 체육교사 항소심도 집중

여제자들을 상습 성추행한 여교사 전 체육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복 모 여교사 전 체육교사 박모(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원심이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아동학대방지강의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2년간의 보호관찰 명령도 유지했다.

박씨는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제자 24명을 상대로 어깨와 손, 허리를 만지는 등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선생님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 짐승을 올려준다"고 말하는 등 학생 5명에게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박씨는 2016년 4월부터 6월까지 특정 학생에게 "강당 무너지겠다. 잘 좀 빼라"고 말하는 등 정서적 학대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으로 박씨는 파면됐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교사로서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학생에게 범행 행위를 저지른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학생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법원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어린 시절 미세먼지 노출, 초경도 앞당긴다"

이대의대연구팀, 소녀 639명 분석

어린 시절 미세먼지(PM10) 노출이 초경 나이를 앞당긴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2살 이전 초기 초경은 12살 이후 정상적인 초경과 비교해 성장 후 비만과 심혈관 질환, 유방암, 담석암 등의 질환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 교실 하은희 교수팀은 "2010~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13~17세 소녀 639명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노출이 초경 연령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전체의 22%(155명)가 초기에 초경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구팀은 조사 대상 아이들의 초경 시작 날짜를 기준으로 3년 동안 거주 지역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를 추적해 초기 초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이 결과 아이들이 사는 지역의 1년 전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1μg/m³ 증가할 때마다 초경 연령이 0.046세 빨라지는 특징을 보였다. 이처럼 초경이 빨라지는 추세는 같은 조건에서 2년 전 노출 0.038세, 3년 전 노출 0.031세 등으로 최근 1년 전 미세먼지 노출 증가가 초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무더위 쉼터 일제 정비 29일 광주 북구청 안전총괄과 직원들이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중흥동의 한 경로당에서 여름철 냉방기를 점검하고 있다. 북구는 올해 경로당과 은행 등 388개 무더위쉼터를 새롭게 지정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초등생 폭행 40대, 잡고보니 불법 대출 드러나 구속

아들 머리에 고무공을 튕겼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한 혐의로 드러나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동부경찰은 "인터넷 사이트에 대출 광고를 올린 뒤 현금을 빌려주고 고리 이자를 받은 김모(42)씨를 대부업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일당 3명을 인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에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지난해 11월에 피해자 A씨에게 '원금 335만원, 원금 변제시까지 월이자 70만원에서 25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최고 연 899% 상당

의 이자를 행했고 연체를 했다는 이유로 8회에 걸쳐 전화상으로 가족들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 아르바이트생에게 이자 수금을 시켰으며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지인 전화번호를 전송받아 연체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씨는 지난 13일 광주시 서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놀고 있던 초등학생 3학년생(만 9세) 3명을 때려 상체를 입힌 혐의로 광주서부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경찰은 김씨를 아동복지법을 위반 혐의로 검찰에 추가 송치할 예정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술취해 비행기서 흡연·난동 20대 여성 징역형 선고

베트남행 비행기에서 술에 취해 흡연하다가 여승무원이 제지하자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재환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5·여)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함께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밤 11시 30분께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베트남 하노이 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이스타항공 기내 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담배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이스타항공 소속 승무원 B(여·23)씨를 기내흡연을 제지하며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자 발로 배를 걷어차 넘어지게 했다. /연합뉴스

광주~인천공항 택시요금 먹튀 승객 12일만에 덜미

○...광주에서 택시를 타고 인천국제공항까지 갔다가 '요금미납'을 당했다가 '요금미납'을 당했다가 '요금미납'을 당했다

○... 29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대학생 A(25)씨는 지난 16일 광주시 서구 광천동 광주종합버스터미널 앞에서 김모(33)씨의 택시를 타고 인천국제공항까지 가려고 운전기사 김씨에게 "현금이 없다. 곧 입금하겠다"며 은행계좌를

받은 뒤 입금 않고 행방을 감췄다가 12일만에 지난 28일 붙잡혔다는 것.

○... 경찰은 운전기사 김씨가 미리 확보한 휴대전화를 바탕으로 추적을 나서 승객 A씨를 검거했는데, 경찰 조사에서 그는 "당시 현금이 없었고 그동안 동남아 여행을 다녀오느라 입금도 못했다. 택시요금도 본래 29만원으로 합의했는데, 막상 도착해서 33만원을 달라니 화가 난 부분도 있었다"며 변명으로 일관.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나주, 2층 주택, 매매

-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383번지
 - 대지106평, 건물42평
 - 1/2층 - 각 방2 화1 거실
 - 혁신도시에서 15분, 신북에서 5분
 - 집마당까지 차량진입가능
 - 시세 - ~~약 1000만원~~
 - 개인사정상 급매 - 8200만원
- H. 010-6834-7400

"전체"수리 했습니다

